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김 안 나*
(대구가톨릭대학교)

최 승 아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제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용어: 결혼이주여성, 서비스, 서비스 이용여부, 서비스 이용수준, 다문화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통합” 과제(과제번호: NRF-2010-330-B00194)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

* 교신저자: 김안나, 대구가톨릭대학교(ankim@cu.ac.kr)

■ 투고일: 2012.4.6 ■ 수정일: 2012.5.24 ■ 게재확정일: 2012.6.14

I. 서론

19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은 2000년도 이후 더욱 증가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결혼 10건 중 1건이 국제결혼건수를 보여줄 정도로 우리사회 내 국제결혼이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의 76.7%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통계청, 2010) 국제결혼이주민 중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이의 중심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연구에서는 이미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나 적응, 정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문화적응, 건강문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Abe-Kim et al., 2007; Bourdillon & Bennegadi, 1992; Chuang & Gielen, 2009; Curl & Vermeulen, 2003; Hyman & Guruge, 2000). 한편, 국내연구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부부갈등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사례연구 및 프로그램 연구, 지역사회 적응요인 연구 등(김오남, 2006; 노하나, 2007; 박경동, 2007; 손은록, 2004; 신란희, 2005; 윤혜미, 2009; 이강숙, 2007; 이은아, 2009; 임석희, 2009; 장은정, 2007; 최금해, 2006; 최혜지, 2009)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 생활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한 사회의 객관적 필요 혹은 욕구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대응이라 규정한다면, 우리사회 내 급증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경험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주민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내용들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안나 외, 2011). 2008년 결혼이주여성 관련법이 마련되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 현재 전국에 159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내용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한 자녀문제, 취업문제, 가족문제 등 다각적인 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이다(이가옥·이미진, 2001; 이재모·이신영, 2006; 이혜원, 1995; 임정기, 2008; 최승아, 2009). 최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이오복, 200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주재·김순규,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이영분 외, 201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성향숙, 2010), 서비스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김기현, 2008)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이용경험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특정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일반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징이나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 여부 등 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보다는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급격히 증가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 십여 년 간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우리사회의 적절한 대응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 실태조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를 활용하여 현 우리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수준을 중심으로 우리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전국다문화 실태조사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한 조사로 현 우리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욕구 및 필요에 대한 일반화에 장점을 지닌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이 필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측정할 목적이라면, 이후 분석하게 될 서비스 이용에 관

한 영향요인 분석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기초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상별·육구별 서비스 제공에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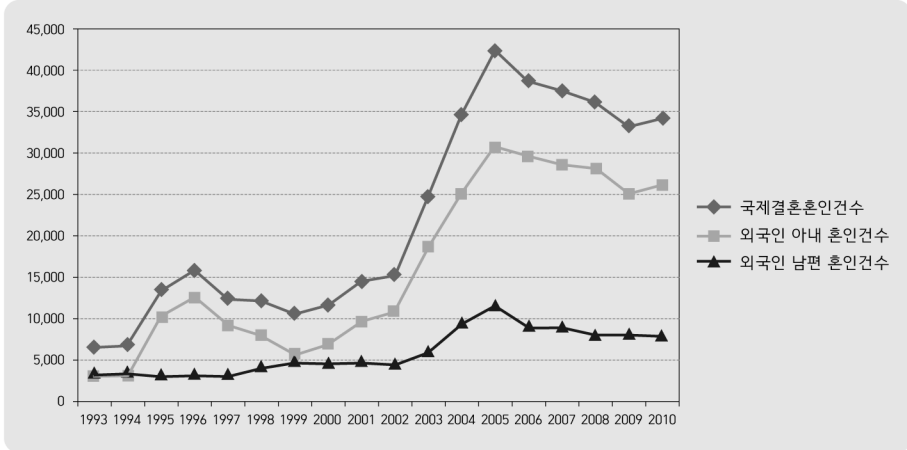
1.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서비스 실태와 특성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되며,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혹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이재분 외, 2008). 국제결혼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990년대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 현재 34,235건으로 총 결혼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2010년 현재 26,274명으로 외국인 남편에 비해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는 다문화 가족의 확대 생산을 유발하였고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촉발하였다.

다문화사회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등과 같은 이민자 집단에 대해 상대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적 이념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숙희, 2008).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적응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 2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159개소로 약 8배 가량 증

그림 1. 국제결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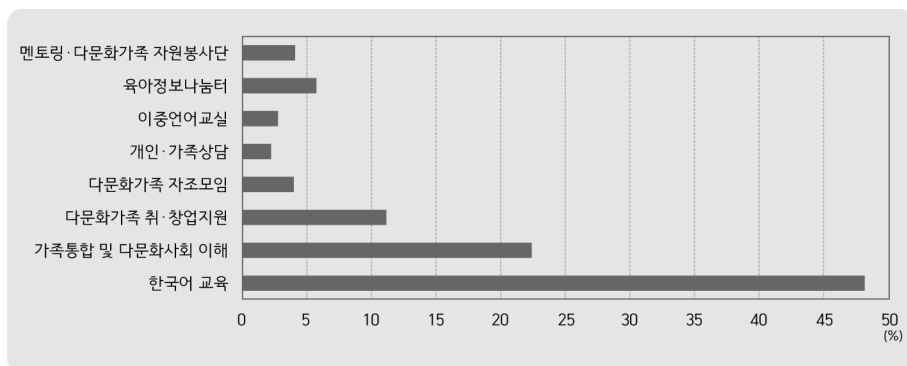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는 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요약으로 한국어교육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가 22.3%, 취·창업지원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센터 총 이용 연인원은 1,234,670명이며, 2009년 이용 연인원 734,131명 대비 168%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많은 이주여성이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 이러한 센터사업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결혼이주여성의 필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주여성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교육 사업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여타 다른 서비스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욕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이 너무 한국어교육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계망 형성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종 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이주여성의 출신문화 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여(김기현, 2008), 다른 욕구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욕구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양육·학습지원 서

비스와 그 외 가족상담교육, 임신출산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측면에 있어서 센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지역별 다문화가족의 수요 차이를 차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부족, 서비스의 신속성 결여, 포괄적이지 못한 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사후관리 부족 등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상기·정운수, 2010).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접근성 향상의 노력, 체계적인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현 시점에서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 센터운영사업 총 이용현황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26).

2.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론적 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노인이나 부양가족 등 특정대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강유진·강효진, 2005; 김은영 외, 2008; 박경숙, 2003; 송다영, 2003; 이미애, 2005; 임정기, 2008; 이동호 외, 2006; 이재모·이신영, 2006; 이해원,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재가

복지서비스나 가족봉사원 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및 교육수준, 자녀와의 동거여부, 가구소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적자원이나 비공식적 지원 여부도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구소득, 자녀와의 동거여부 등 가족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노인이나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이며, 특히 재가복지서비스나 가정봉사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서비스기관 이용경험, 복지욕구 등에 관한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지고 있지만(이주재·김순규, 2010; 성향숙, 2010; 이오복, 2009; 김기현, 2008), 연구대상 선정이나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방법 등의 측면에서 제한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서비스의 목표설정 및 내용구성 등에 있어서 이주여성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고 향후 서비스 정책에 있어서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많은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도 확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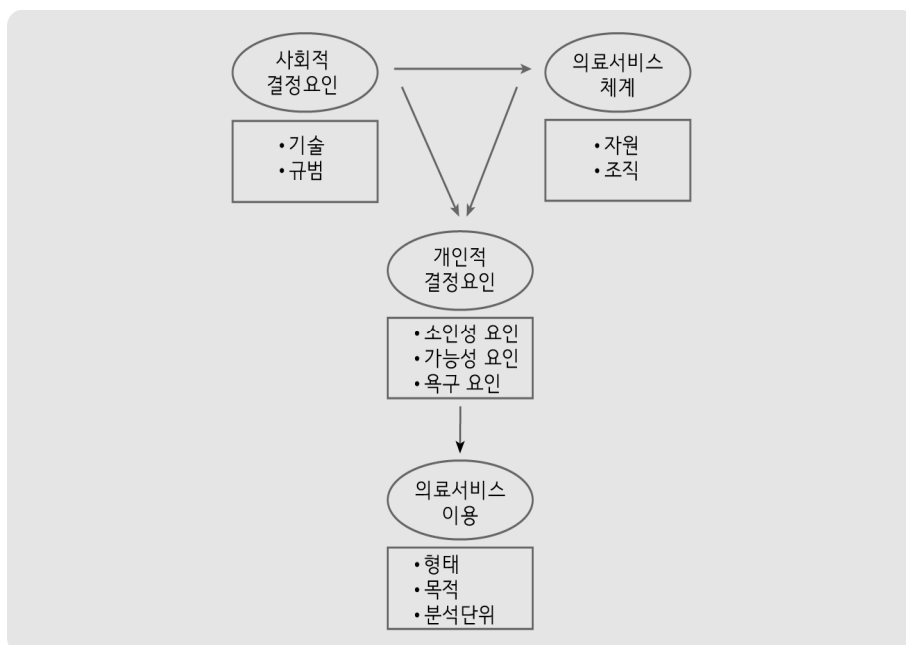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시도되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Anderson과 Newman(1973)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Anderson과 Newman(1973)의 분석들은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 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 factors)의 세 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였다.

소인성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련되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교육수준, 직업, 인종, 종교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건강에 대한 믿음, 의료행위에 대한 신념체계 등을 포함한다. 가능성 요인은 개인이 의

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개인 및 가족의 자원 및 지역 사회 자원을 포함한다. 개인 및 가족의 자원은 소득, 건강보험 등이며, 지역사회자원은 의료인력과 시설의 공급형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의료서비스 가격,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등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가족형태, 사회적 지지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주관적, 객관적 건강문제들을 포함한다. 즉, 질병 혹은 장애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질병에 대한 인지, 또는 자각증상과 임상적으로 진단된 질환과 상태를 말한다 (Anderson, 1995).

이 모형에서는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형태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그림 3]에서는 기술 및 규범 등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자원, 조직 등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결정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형태, 목적, 분석단위 등이 결정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Anderson & Newman(1973)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조적 틀



Anderson과 Newman(1973)이 제시한 모델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 분석 외에도 이후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각종 서비스 이용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서비스 인지도 연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Calsyn & Winter, 1999).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적 요인과 서비스 체계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고,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Mui & Burnett, 1994).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Newman의 사회서비스 이용 모델을 이론적 분석틀로 적용하되, Anderson과 Newman 모델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욕구요인을 주관적, 객관적 건강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건강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욕구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유무와 보육 및 자녀교육 참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의 유무와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욕구와 다양한 서비스 이용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 외에도 미취학 아동여부, 차별경험 유무 등 다양한 주요 변수들을 욕구요인으로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Anderson과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을 요인별로 검토하고 이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Anderson과 Newman의 모델을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가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연구도 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소인성 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서비스 인지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

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Calsyn & Winter, 1999; 강유진·강효진, 2005). 한편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의 소인성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orrayo et al., 2002; Henley et al. 1990; 이미애, 2005; 박경숙, 2003; 이가옥·이미진, 2001).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이 안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도 또는 이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어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았다. 인종 역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Abe-Kim et al., 2007; Allard et al., 2003).

가능성 요인과 관련하여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에 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여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도 있다(Gill et al., 1998; Norgard & Rodgers, 1997; Henley et al., 1990; 이미애, 2005; 이인정, 2004). 이민자의 경우 언어기술과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사회적 지지망 역시 이민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Abu-Ras, 2003; Kadushin, 2004; Devillanova, 2007). 또한 그 지역사회에 거주한 기간도 서비스 인식 및 이용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rout, 1985).

선행연구들은 욕구요인으로서 노인의 신체상의 장애와 인식상의 장애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노인의 질환과 일상생활 기능손상 정도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소인성 요인 및 가능성 요인보다 욕구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이인정, 2004; 송다영, 2003; 윤현숙, 2001). Henley 외(1990)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요양원 이용이 증가하였고, Mui와 Burnette(1994)은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결과도 있으며(Richardson, 1992), 정서상태와 서비스 욕구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Calsyn & Roades, 1993; Calsyn et al., 1998; Mindel & Wright, 198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욕구요인으로서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질환 수, 삶의 만족도, 서비스 욕구 등은 서비스 이용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에서 Anderson과 Newman의 모델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Anderson & Newman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요약

저자	분석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Mui & Burnette (1994)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기보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성 요인: 성, 연령, 인종 • 가능성 요인: 소득, 동거형태, 재가서비스 태도, 일상생활통제능력,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비공식적 지지망, 다른 장기보호서비스 이용여부 • 욕구요인: 인지장애, ADL, 질병수, 인지된 ADL 및 IADL 욕구,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적을수록, 백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재가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일상생활통제능력이 높을수록, 친구 및 가족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적을수록, 기능손상이 심할수록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짐.
Gill et al. (1998)	치매노인 부양자	치매와 관련된 공식적 서비스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성 요인: 치매노인 연령, 성, 인종, 교육수준, 부양자 연령, 성, 교육수준, 동거형태 • 가능성 요인: 노인소득, 의료보호, 도움 수 있는 사람 수, 부양자 태도 • 욕구요인: 치매노인의 행동문제, ADL 문제, 인지적 손상 정도,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자 평가, 부양자 부담, 정신적 증상, 건강상 제한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매노인과 따로 거주할수록, 의료보호를 받는 경우, 행동적·ADL 문제가 심할수록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짐.
Calsyn & Winter (1999)	노인	재가 서비스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성 요인: 연령, 성, 교육수준, 인종 • 가능성 요인: 소득, 거주지역, 거주기간, 응급지원, 사회적 접촉, 비공식지원, 가구형태, 연령차별 • 욕구요인: 건강상태, 정신건강이 인종은 일수, 일상생활에 도움필요여부, 외로움, 서비스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접촉이 많을수록, 도시거주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차별이 낮을수록, ADL/IADL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Kadushin (2004)	60세 이상 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성 요인: 연령,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인종 • 가능성 요인: 동거형태, 비공식 지원, 소득, 건강보험, 인구밀도 • 욕구요인: 신체적 손상정도, 인지장애, 부양자의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L/IADL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혼자 살 경우, 비공식지원이 적을수록, 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짐.

표 1. Anderson & Newman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요약(계속)

저자	분석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송다영 (2003)	65세 노인을 모시는 가족 부양자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요인: 연령, 부양자-노인간 친밀관계, 노인부양 가치관 • 가능태요인: 소득수준, 서비스 인지여부, 경제적 지원, 부부양자 유무 • 욕구요인: 취업여부, 건강상태, 부양기간, 피부양노인 질병/장애 문제, 피부양노인 일상생활수행 능력,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가족내 추가된 보호요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낮을수록, 노인과 친밀하지 못한 관계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 부부양자가 없을수록 서비스 이용의사가 높아짐.
강유잔 강효진 (2005)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 가능태요인: 거주지역, 결혼상태, 자녀수, 이웃수, 가입한 사회단체 수, 월 용돈, 가구월소득 • 욕구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지원,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각 서비스별로 유의미함. • 연령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이용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
김남희 (2008)	마약류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자	입원· 입소 상태, 서비스수, 서비스 이용지속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요인: 나이, 혼인상태, 학력, 약물사용기간 • 자원요인: 가족월수입, 가구원 친족구성, 사회적 지지 • 욕구요인: 평가된 욕구, 인지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이 높을수록, 동료의존자의 지지가 클수록, 인지된 욕구가 클수록 이용서비스 수 및 이용의사가 높아짐.
박경숙 (2008)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 노인 전수	사회복지 서비스별 이용 기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속요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 자원요인: 동거가족구성원, 주택 종류, 거주지역 • 욕구요인: 주택의 불편함,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동거가족구성원, 질병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거주지역 등이 각 서비스별로 큰 영향을 미침.
임정기 (2008)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입소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요인: 성별, 연령, 서비스별 희망욕구 • 자원요인: 동거가족, 기초생활수급여부, 환경, 고립여부, 수발상태 • 욕구요인: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욕구, 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서비스 희망욕구, 동거가족 여부 등의 선행요인, 자원요인이 욕구요인과 결합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Anderson & Newman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요약(계속)

저자	분석대상	종속변수	독립변수	연구결과
이윤경 (2009)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노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요인: 성, 연령 • 자원요인: 경제수준, 동거가족유무, 수발자 유무, 수발자 관계 • 욕구요인: ADL, IADL,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욕구, 등급 • 지역요인: 지역, 서비스의 양, 서비스 종류, 요양병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ADL상태가 나쁠수록, 문제행동이 나쁠수록, 간호처치에 대한 욕구가 낮을수록,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종류가 많은 지역일 경우, 요양병원수가 적은 지역일 경우 서비스 이용확률이 증가함.
최승아 (2009)	일반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성 요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종교 • 가능성 요인: 가구소득, 거주지역, 동거가족수, 사회적 지지망 • 욕구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생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동거가족수는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짐.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 여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요인: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직업유무 • 촉진요인: 가구소득, 거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인지도, 한국어 능력, 부부관계, 이웃관계, 사회적 지지망 • 욕구요인: 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인지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의 연계가 높을수록 전체 서비스 이용이 높음.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자료의 특성 등에 따라 요인별 변수 구성에 차이가 있고, 연구대상이나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같은 변수라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Newman의 모델을 적용하되, 앞서 언급한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수를 구성하며 이들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소인성 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자녀수, 국적을 포함하였고, 분석대상이 여성에 한정되므로 성별은 제외하였다. 가능성 요인으로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주로 가구 및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 거주환경, 한국거주기간, 사회적 지지망

을 포함하였다. 욕구요인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개인적 상황으로서 주관적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외에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변수로서 미취학자녀 유무, 차별경험 유무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함께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는 전국의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며, 개인의 일반적 인 인적사항, 취업관련 문항,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있다.¹⁾ 분석을 위해서 총 73,669명의 응답자 중 여성만 추출하여 69,394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변수 소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비스 이용여부와 서비스 이용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먼저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에는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이 포함되었고,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에는 가족상담 및 교육, 자녀양육·학습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서비스 이용여부는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한

1) 본 실태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전수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기초현황자료(복지부)에 기초한 154,333가구를 중심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131,702가구 중 완료된 73,669가구에 대한 자료이다(김승권 외, 2010). 따라서 해당 자료의 활용은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큰 장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적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해서는 위 4개 유형의 서비스 이용여부를 모두 합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연구와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변수를 구성하였다.

소인성 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자녀수, 국적이 포함된다. 연령은 만나기로 계산하였고, 결혼상태는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고졸을 기준으로 고졸미만과 고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상태는 미취업과 취업인 경우로, 자녀수는 한국 배우자(동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를 포함하였다. 국적은 조선족, 중국(한족, 기타민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기타 등) 등 6개로 구분하였다.

가능성 요인으로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구 및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변수로서 경제적 수준, 거주환경, 한국거주기간, 사회적 지지망이 포함되었다.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가족과 비교 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0부터 10까지 평가하도록 한 경제적 수준 변수를 활용하였다. 거주환경은 매우 양호함(1점)~매우 열악함(5점)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열악함을 의미한다. 한국거주기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수로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여부를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응답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모국인 중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있으면 3, 없으면 0이 되며, 한국인, 기타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0~3까지의 값을 가진다.

욕구요인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변수로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미취학자녀 유무, 차별경험 유무를 포함하였다.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좋다(1점)~매우 나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생활 전반적으로 고려한 현재 삶의 만족도를 매우 만족(1점)~매우 불만(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미취학아동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분석하였고,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있으면 1, 없으면 0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독립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결정요인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주요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및 변수값		
종속 변수	서비스 이용여부	① 한국적응관련서비스: 한국어교육+한국사회적응교육 ② 가족및자녀관련서비스: 가족상담 및 교육+ 자녀양육·학습 ③ 임신및출산관련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④ 직업훈련서비스: 직업훈련 참여부	이용한적 있음=1 이용한적 없음=0	
	서비스 이용수준	위 4개 서비스 이용경험 합산(0~4)		
독립 변수	소인 성 요인	연령	만 나이	
		결혼상태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학력	0=고졸 미만, 1=고졸 이상	
		취업상태	0=미취업, 1=취업	
		자녀수	한국 배우자(동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수	
	가능 성 요인	경제적수준	한국가족과 비교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0(최하층)~10(최상층)으로 응답	
		거주환경	1=매우양호함, 2=양호함, 3=보통임, 4=열악함, 5=매우열악함	
		한국거주기간	한국에 거주한 개월 수	
		사회적지지방- 모국인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여부(0~3)	
		사회적지지방- 한국인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여부(0~3)	
욕구 요인	사회적지지방- 기타외국인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여부(0~3)		
	건강상태	1=매우좋다, 2=좋은편이다, 3=보통이다, 4=나쁜편이다, 5=매우나쁘다		
	삶의만족도	1=매우만족, 2=만족, 3=보통, 4=불만, 5=매우불만		
	미취학이동 유무	0=없음, 1=있음		
	차별경험 유무	0=없음, 1=있음		

IV. 분석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69,394명의 결혼이주여성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연령은 20대 이하가 38.8%로 가장 많았고, 30대 33.0%, 40대 19.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대부분(95.3%)이 배우자가 있었고, 이혼(3.5%), 사별(1.1%)도 소수 차지하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28.0%), 대졸(18.4%), 초졸(8.8%) 순으로 분포하였고, 무학도 0.9%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는 36.3%,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63.7% 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수는 40.1%가 1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없는 경우도 35.4%나 되었고, 평균적으로 0.95명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조선족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7.9%), 한족, 기타민족 등 중국(13.4%), 필리핀(9.0%) 순으로 분포되었다.

한국가족과 비교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최하 0부터 최상 10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 3.75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환경에 있어서는 42.9%가 보통, 30.5%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은 양호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7.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63.28개월로 나타났는데, 2~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23.4%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 지지망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여부를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반수 이상은 의논할 사람이나 여가·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6.8%는 주변에 의논하거나 같이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결혼이주여성은 기타외국인보다 모국인 및 한국인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연령	20대 이하	26,912	38.8	한국거주 기간	2년 미만	14,525	20.9
	30대	22,920	33.0		2~5년 미만	22,884	33.0
	40대	13,838	19.9		5~10년 미만	15,736	22.7
	50대	4,590	6.6		10년 이상	16,249	23.4
	60대 이상	1,107	1.6		합계	69,394	100.0
	합계	69,367	100.0		평균(S.D)	63.28개월(51.85)	
결혼상태	배우자있음	65,620	95.3	사회적 지지망 - 모국인	없음	26,235	39.7
	이혼	2,435	3.5		1명	16,557	25.0
	사별	789	1.1		2명	11,527	17.4
	합계	68,844	100.0		3명	11,805	17.9
	무학	607	.9		없음	17,795	26.9
학력	초졸	6,070	8.8	사회적 지지망 - 한국인	1명	15,725	23.8
	중졸	19,246	28.0		2명	14,110	21.3
	고졸	29,082	42.4		3명	18,492	28.0
	대졸	12,612	18.4	사회적 지지망 - 기타외국인	없음	61,865	93.6
	대학원졸	1,025	1.5		1명	2,737	4.1
	합계	68,642	100.0		2명	992	1.5
					3명	527	.8
취업상태	현재 일하고 있다	24,697	36.3	사회적 지지망 - 총합	없음	4,464	6.8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14,431	21.2		1~2명	18,316	27.7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28,939	42.5		3명	32,767	49.6
	합계	68,067	100.0		4명이상	10,577	16.0
					합계	66,124	100.0
					평균(S.D)	2.73(1.43)	
자녀수	없음	22,704	35.4	건강상태	매우좋다	12,631	18.4
	1명	25,748	40.1		좋은편이다	22,489	32.8
	2명	12,721	19.8		보통이다	25,872	37.7
	3명	2,390	3.7		나쁜편이다	6,567	9.6
	4명이상	571	.9		매우나쁘다	980	1.4
	합계	64,134	100.0		합계	68,539	100.0
			평균(S.D)	2.43(0.94)			
국적	중국(조선족)	24,561	35.4	삶의 만족도	매우만족	15,765	23.1
	중국(한족 등)	9,294	13.4		만족	22,883	33.5
	베트남	19,363	27.9		보통	25,030	36.6
	필리핀	6,212	9.0		불만	3,827	5.6
	일본	3,618	5.2		매우불만	827	1.2
	기타(몽골, 태국 등)	6,346	9.1		합계	68,332	100.0
	합계	69,394	100.0		평균(S.D)	2.28(0.92)	
경제적수준	평균(S.D)	3.75(1.88)	미취학 자녀 유무	없음	35,682	51.4	
매우양호함	6,321	9.2		있음	33,712	48.6	
양호함	20,869	30.5		합계	69,394	100.0	
보통임	29,424	42.9		차별경험 유무	없음	44,670	66.4
열악함	10,087	14.7	있음		22,592	33.6	
매우열악함	1,821	2.7	합계		67,262	100.0	
합계	68,522	100.0					
평균(S.D)	2.71(0.92)						

건강상태는 대부분이 보통이거나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11% 정도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36.6%가 보통이라고 하였고, 절반 이상인 56% 정도가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6.8% 가량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절반 가량인 48.6%가 미취학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3.6%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 실태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유형별로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4>).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에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적응교육이 포함되며, 절반 이상인 54.2%가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는 39.1%,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는 30.9%, 그리고 직업훈련 서비스는 11.4%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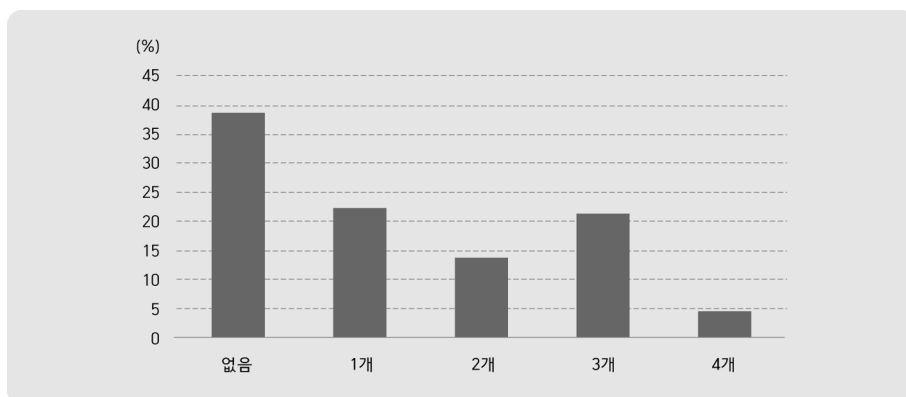
표 4. 서비스 이용여부

특성	구분	빈도(명)	%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이용한 적 없음	27,992	45.8
	이용한 적 있음	33,135	54.2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한 적 없음	36,133	60.9
	이용한 적 있음	23,194	39.1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이용한 적 없음	41,606	69.1
	이용한 적 있음	18,587	30.9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한 적 없음	58,466	88.6
	이용한 적 있음	7,525	11.4

이용수준에 있어서는 위 네 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4.6%였고,

약 60% 정도는 1개 이상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평균적으로 1.31개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8.4%는 이 중 한 가지 서비스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서비스 이용수준



<표 5>에서는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서비스 유형 중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모두 20대 이하에서 이용한 비율이 절반 가량 나타났으나, 직업훈련 서비스는 30대에서 40.2%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37.5%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훈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3.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서비스를 이용한 이주여성의 약 62% 가량이 고졸 이상의 학력이었으며,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자에 있어서는 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71.2%로 더욱 높았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미취업자일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72~3%대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취업자도 37.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한국적응

관련 서비스는 자녀가 1명이거나 없을 경우 이용한 비율이 약 7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와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는 자녀가 1~2명일 경우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훈련 서비스 역시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1명이거나 없을 경우 높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국적에 있어서는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의 경우 모두 베트남이 30%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업훈련 서비스는 조선족이 27.9% 가량 이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과 거주환경의 경우는 서비스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거주환경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이용자의 약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의 경우 4개 서비스 유형 모두 2~5년 미만 이 약 35%대로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와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는 2년 미만 거주한 여성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서비스의 경우는 5년 이상, 10년 이상의 비율도 약 25% 정도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망은 3명 정도 있다는 경우가 각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약 50% 정도로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는 서비스 이용자 중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38%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유사하였으나, 직업훈련 서비스의 경우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비율이 1.2%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보통, 만족하는 경우가 이용자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각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가 각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약 65%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서비스의 경우는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도 39.5%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훈련 서비스는 서비스의 목적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용하는 연령대와 학력, 취업상태, 국적, 한국거주기간, 차별경험 유무 등의 특성에 있어서 다른 서비스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역시 이용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수, 미취학자녀 유무 등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볼 때, 서비스 대상 선정과 서비스의 설계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단위: 명, %

특성	구분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및자녀관련 서비스		임신및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인함 (n=27,992)	이용함 (n=33,135)	이용인함 (n=36,133)	이용함 (n=23,194)	이용인함 (n=41,606)	이용함 (n=18,587)	이용인함 (n=58,466)	이용함 (n=7,525)
연령	20대 이하	22.0	52.4	33.0	46.7	32.4	51.8	38.8	37.5
	30대	36.4	31.1	32.5	35.3	33.2	34.9	32.3	40.2
	40대	27.4	13.8	22.8	15.7	23.7	11.8	20.4	17.3
	50대	11.3	2.3	9.3	2.0	8.6	1.4	6.9	4.3
	60대 이상	2.9	4	2.3	.2	2.1	.2	1.7	.7
	χ^2	7715.681***		2661.848***		3528.752***		264.754***	
결혼 상태	무배우(사별 이혼 등)	7.8	1.7	6.1	2.3	5.9	1.5	4.7	3.9
	유배우	92.2	98.3	93.9	97.7	94.1	98.5	95.3	96.1
	χ^2	1308.887***		461.786***		586.504***		11.383**	
학력	고졸 미만	35.8	37.9	37.4	36.2	36.4	37.8	38.9	28.8
	고졸 이상	64.2	62.1	62.6	63.8	63.6	62.2	61.1	71.2
	χ^2	27.702***		8.758**		10.893**		284.775***	
취업 상태	미취업	53.3	72.3	58.9	70.6	58.5	75.1	64.3	62.3
	취업	46.7	27.7	41.1	29.4	41.5	24.9	35.7	37.7
	χ^2	2345.139***		814.792***		1496.871***		10.908**	
자녀수	없음	43.1	28.9	45.5	18.9	42.8	17.7	36.6	27.7
	1명	32.9	45.8	35.4	47.3	34.9	51.7	40.0	41.6
	2명	20.1	19.9	16.2	26.1	18.3	24.1	19.1	25.0
	3명	3.2	4.3	2.4	6.0	3.2	5.3	3.5	4.8
	4명이상	.7	1.1	.5	1.7	.8	1.4	.9	.9
	χ^2	1487.934***		4482.884***		3436.320***		277.921***	
국적	중국(조선족)	63.2	12.5	46.3	20.2	43.5	19.3	36.8	27.9
	중국(한족 등)	11.4	15.4	13.4	13.2	13.5	13.4	13.4	15.7
	베트남	13.8	37.7	23.1	32.4	23.4	34.2	28.2	21.8
	필리핀	2.8	13.9	4.7	14.6	5.4	15.7	7.1	20.1
	일본	3.3	7.8	4.5	7.9	5.8	5.6	5.6	3.1
기타(몽골, 태국등)	5.5	12.7	7.9	11.7	8.3	11.8	8.9	11.4	
	χ^2	17830.820***		5219.991***		4401.165***		1730.778***	
경제적 수준	평균(S.D)	3.54(1.930)	3.99(1.765)	3.70(1.890)	3.92(1.791)	3.70(1.883)	3.96(1.774)	3.73(1.877)	3.90(1.874)
	t(sig)	-29.982***		-13.786***		-16.047***		-7.055***	

* : p<.05, ** : p<.01, *** : p<.001

표 5. 결혼이주여성 특성에 따른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계속)

단위: 명, %

특성	구분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및자녀관련 서비스		임신및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인함 (n=27,992)	이용함 (n=33,135)	이용인함 (n=36,133)	이용함 (n=23,194)	이용인함 (n=41,606)	이용함 (n=18,587)	이용인함 (n=58,466)	이용함 (n=7,525)
거주 환경	매우양호함	8.6	10.0	9.3	9.6	9.2	9.7	9.2	9.5
	양호함	28.6	32.3	30.0	31.7	29.9	32.5	30.3	32.0
	보통임	43.0	42.6	42.6	42.9	42.7	42.8	43.0	42.7
	열악함	16.6	12.9	15.3	13.4	15.3	12.8	14.9	13.2
	매우열악함	3.2	2.3	2.8	2.5	2.9	2.2	2.6	2.5
	χ^2	288.062***		53.346***		109.623***		20.568***	
한국 거주 기간	2년 미만	12.9	27.8	20.8	20.7	19.7	23.4	21.2	19.8
	2-5년 미만	29.1	36.9	32.2	35.4	31.3	38.0	33.5	30.5
	5-10년 미만	29.3	18.2	23.5	23.2	24.4	21.3	22.4	25.9
	10년 이상	28.8	17.1	23.6	20.7	24.7	17.4	22.8	23.8
	χ^2	3599.364***		97.793***		607.021***		63.878***	
사회적 지지망	없음	8.2	4.9	7.5	4.7	7.2	4.6	6.9	5.4
	1~2명	28.0	25.4	27.9	24.0	27.5	24.0	27.7	25.6
	3명	49.7	51.5	49.4	53.0	49.2	54.1	49.9	49.9
	4명이상	14.2	18.2	15.2	18.3	16.0	17.3	15.6	19.0
	χ^2	440.572***		374.029***		267.332***		78.115***	
건강 상태	매우좋다	16.0	20.7	18.1	19.1	17.5	21.0	18.5	17.9
	좋은편이다	35.0	32.3	34.1	32.7	33.5	33.7	33.0	33.5
	보통이다	35.6	38.4	35.9	38.7	36.9	37.3	37.4	38.7
	나쁜편이다	11.3	7.9	10.1	8.6	10.4	7.3	9.7	8.7
	매우나쁘다	2.2	8	1.8	.9	1.7	.7	1.4	1.2
χ^2	648.302***		150.758***		319.428***		14.780**		
삶의 만족도	매우만족	20.8	24.6	23.0	22.4	22.1	24.5	23.3	20.5
	만족	35.6	32.8	34.8	32.9	34.3	33.7	33.4	35.9
	보통	37.1	35.6	35.9	37.0	36.8	35.2	36.6	36.6
	불만	5.2	5.9	5.1	6.3	5.7	5.5	5.5	5.9
	매우불만	1.3	1.1	1.2	1.3	1.2	1.1	1.2	1.1
χ^2	161.123***		60.017***		44.033***		35.880***		
미취학 자녀유무	없음	62.5	40.6	61.2	33.0	59.9	28.2	51.9	45.8
	있음	37.5	59.4	38.8	67.0	40.1	71.8	48.1	54.2
	χ^2	2899.280***		4492.366***		5176.638***		99.504***	
차별경험 유무	없음	64.3	67.7	66.3	65.9	65.6	67.4	67.0	60.5
	있음	35.7	32.3	33.7	34.1	34.4	32.6	33.0	39.5
	χ^2	78.850***		1.269		18.646***		123.516***	

* : p<.05, ** : p<.01, *** : p<.001

3.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성 요인 중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학력일수록($p < .05$), 미취업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의 경우 기타(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에 비해 조선족과 중국(한족), 베트남($p < .01$)이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낮았고, 필리핀, 일본은 기타에 비해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의 경우 기타 출신 국가의 여성들보다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약 2.3배($e^{0.8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출신의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빠른 조선족 여성의 경우 기타 출신국 여성들에 비해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약 87%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가능성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망-한국인’ 변수만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과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육구 요인 중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p < .001$),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p < .001$),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p < .01$),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p < .001$)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약 1.2배 정도 높게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별경험이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가족상담이나 자녀양육 및 학습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의 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할 때마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약 1.6배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서비스 이용에 자녀 변수의 중요도를 예측할 수 있다. 다른 요인들

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 중에서는 연령, 학력, 자녀수, 국적 등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일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기타 국적에 비교하여,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일 경우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본 모형에서 선택한 가능성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해당 서비스 이용여부를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사회적 지지망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인을 많이 사귀수록, 혹은 기타 외국인과의 관계가 많을수록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욕구요인 중에서는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삶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이용확률이 높아졌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p<.001$).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소인성 요인은 거의 모든 변수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 본 이용여부는 기타 출신국에 비해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가능성 요인의 설명력은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 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요인은 한국의 거주기간과 사회적 지지망 변수로 한국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과의 지지망이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소인성 요인에서는 결혼상태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p<.001$), 고학력일수록($p<.001$), 미취업보다는 취업자일 경우($p<.001$) 자녀가 많을수록($p<.001$)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출신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출신국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높은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을 보여주는데 이는 약 2배 이상, 한족 출신의 경우 약 1.2배 가량 높은 취업서비스 이용 확률을 보였다. 반면 조선족, 베트남,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기타 국적에 비해 직업훈련을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요인의 경우 다른 서비스 이용여부 보다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 여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능성 요인 중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p<.05$), 거주환경이 열악할수록($p<.01$),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p<.01$),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높을수록($p<.001$)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졌다.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 이용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차별경험의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없는 여성들 보다 약 1.3배 정도 높은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있어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가지 서비스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가능성 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 사회적 지지망 변수의 경우 모든 서비스 이용 여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인인 욕구요인의 경우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와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해서는 높은 통계적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차별경험의 경우 모든 4가지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6.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B	Sig.	exp(b)	B	Sig.	exp(b)	B	Sig.	exp(b)	B	Sig.	exp(b)
소인성 요인	연령	-0.023	0.000***	0.977	-0.025	0.000***	0.975	-0.023	0.000***	0.977	-0.025	0.000***	0.975
	결혼상태 ¹⁾	0.273	0.000***	1.314	0.101	0.104	1.106	0.273	0.000***	1.314	0.101	0.104	1.106
	학력 ²⁾	-0.057	0.023*	0.945	-0.086	0.000***	0.918	-0.057	0.023*	0.945	-0.086	0.000***	0.918
	취업상태 ³⁾	-0.232	0.000***	0.793	-0.074	0.002**	0.929	-0.232	0.000***	0.793	-0.074	0.002**	0.929
	자녀수	0.195	0.000***	1.215	0.496	0.000***	1.642	0.195	0.000***	1.215	0.496	0.000***	1.642
	국적 ⁴⁾ 조선족	-2.037	0.000***	0.130	-0.820	0.000***	0.440	-2.037	0.000***	0.130	-0.820	0.000***	0.440
	중국(한족)	-0.412	0.000***	0.662	-0.051	0.222	0.950	-0.412	0.000***	0.662	-0.051	0.222	0.950
	베트남	-0.119	0.006**	0.887	-0.170	0.000***	0.843	-0.119	0.006**	0.887	-0.170	0.000***	0.843
	필리핀	0.802	0.000***	2.230	0.671	0.000***	1.957	0.802	0.000***	2.230	0.671	0.000***	1.957
일본	0.276	0.000***	1.317	-0.064	0.244	0.938	0.276	0.000***	1.317	-0.064	0.244	0.938	
가능성 요인	경제적수준	0.036	0.000***	1.037	0.006	0.316	1.006	0.036	0.000***	1.037	0.006	0.316	1.006
	거주환경	-0.067	0.000***	0.935	0.009	0.468	1.009	-0.067	0.000***	0.935	0.009	0.468	1.009
	한국거주기간	-0.007	0.000***	0.993	-0.001	0.086	0.999	-0.007	0.000***	0.993	-0.001	0.086	0.999
	사회적자자량-모국인	0.195	0.000***	1.215	0.128	0.000***	1.137	0.195	0.000***	1.215	0.128	0.000***	1.137
	사회적자자량-한국인	0.001	0.891	1.001	0.017	0.079	1.017	0.001	0.891	1.001	0.017	0.079	1.017
사회적자자량-기타유대인	0.298	0.000***	1.347	0.180	0.000***	1.197	0.298	0.000***	1.347	0.180	0.000***	1.197	
욕구 요인	건강상태	0.094	0.000***	1.099	0.065	0.000***	1.067	0.094	0.000***	1.099	0.065	0.000***	1.067
	삶의 만족도	0.048	0.000***	1.049	0.043	0.000***	1.044	0.048	0.000***	1.049	0.043	0.000***	1.044
	미취학자녀 있음	0.104	0.001**	1.110	0.411	0.000***	1.508	0.104	0.001**	1.110	0.411	0.000***	1.508
	차별경험 있음	0.181	0.000***	1.198	0.144	0.000***	1.155	0.181	0.000***	1.198	0.144	0.000***	1.155
	상수	1.136	0.000***		-0.589	0.000***		1.136	0.000***		-0.589	0.000***	
모형적합도		LR $\chi^2(21)=18139.38^{***}$ Pseudo R ² =0.2650 Log Likelihood=-25155.255			LR $\chi^2(21)=8127.59^{***}$ Pseudo R ² =0.1247 Log Likelihood=-28532.061			LR $\chi^2(21)=18139.38^{***}$ Pseudo R ² =0.2650 Log Likelihood=-25155.255			LR $\chi^2(21)=8127.59^{***}$ Pseudo R ² =0.1247 Log Likelihood=-28532.061		

* : p<0.05, ** : p<0.01, *** : p<0.001

주: 1) 결혼상태: 1=유배우, 0=무배우(사별,이혼 등), 2) 학력: 고졸이상=1, 고졸미만=0, 3)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0, 4) 국적: 기타=0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분석은 해당 요인별로 서비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모델 1은 소인성 요인을, 모델 2는 가능성 요인을, 모델 3은 욕구요인을 투입하였다. 세 요인 모두를 투입한 모형은 모델 4에 나타나 있다. 모델 1에서는 소인성 요인만 투입하여 서비스 이용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으며, 그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유배우일 경우,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자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 본 서비스 이용수준은 기타 국적에 비해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국가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높은 서비스 이용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소인성 요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 수준 변량의 약 23%를 설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모델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능성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 본 모델 2의 경우 약 7%의 서비스 이용 수준 변량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능성 요인의 모든 변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한국인 지지망이 적을수록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욕구요인만 투입하였는데, 서비스 이용수준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는 건강상태와 미취학자녀 유무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은 서비스 이용 수준 변량의 약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여 서비스 이용수준을 설명한 모델 4에서는 전체 변량의 약 25%를 설명하고 있으며 변수들의 개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만족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수준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는 국적, 자녀수, 미취학자녀 유무 등이었다. 개별 요인들이 함께 투입된 모델 4에서도 소인성 요인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저학력일수록, 취업자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의 경우 기타 출신국에 비해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높은 서비스 이용수준을 보였다. 가능성 요인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이나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지지망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차별의 경험이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각 요인별 설명력을 살펴 본 결과 모든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소인성 요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변량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인성 요인의 설명력은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모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수준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7. 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S.E)	t	B(S,E)	t	B(S,E)	t	B(S,E)	t
소인성 요인	연령	-0.021 (0.001)	-30.11***					-0.012 (0.001)	-14.19***
	결혼상태 ¹⁾	0.090 (0.026)	3.51***					0.054 (0.027)	1.98*
	학력 ²⁾	-0.046 (0.011)	-4.06***					-0.036 (0.012)	-3.04**
	취업상태 ³⁾	-0.140 (0.011)	-12.62***					-0.086 (0.012)	-7.26***
	자녀수	0.237 (0.006)	40.12***					0.194 (0.009)	22.34***
	국적 ⁴⁾ 조선족	-0.809 (0.019)	-42.28***					-0.740 (0.020)	-36.43***
	중국(한족)	-0.136 (0.021)	-6.41***					-0.115 (0.022)	-5.12***
	베트남	-0.125 (0.020)	-6.4***					-0.095 (0.021)	-4.55***
	필리핀	0.579 (0.024)	24.06***					0.553 (0.025)	21.69***
	일본	-0.081 (0.027)	-2.95**					-0.115 (0.029)	-3.94***
가능성 요인	경제적수준			0.052 (0.003)	16.26***			0.013 (0.003)	4.02***
	거주환경			-0.036 (0.006)	-5.67***			-0.015 (0.006)	-2.5*
	한국거주기간			-0.004 (0.000)	-33.83***			-0.002 (0.000)	-10.82***
	사회적지지망- 모국인			0.175 (0.005)	33.95***			0.090 (0.005)	17.88***
	사회적지지망- 한국인			-0.019 (0.005)	-3.75***			0.009 (0.005)	1.75
	사회적지지망- 외국인			0.257 (0.014)	18.756.96			0.142 (0.013)	11.01***
욕구 요인	건강상태					-0.047 (0.006)	-7.95***	0.036 (0.006)	5.95***
	삶의 만족도					0.011 (0.006)	1.84	0.012 (0.006)	1.84
	미취학자녀 있음					0.788 (0.011)	74.76***	0.275 (0.015)	18.66***
	차별경험 있음					-0.002 (0.011)	-0.18	0.096 (0.011)	8.47***
(상수)	2.113 (0.041)	52.05***	1.249 (0.027)	45.52***	1.010 (0.018)	55.48***	1.485 (0.054)	27.45***	
R ²	.2294		.0676		.0951		.2494		
Adjusted R ²	.2293		.0675		.0951		.2491		
F(Sig.)	1561.49***		614.04***		1450.94***		775.58***		

* : p<.05, ** : p<.01, *** : p<.001

주: 1) 결혼상태: 1=유배우, 0=무배우(사별, 이혼 등), 2) 학력: 고졸이상=1, 고졸미만=0, 3) 취업상태: 취업=1, 미취업=0, 4) 국적: 기타=0

V. 결론

본 연구는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유사하게 혹은 상이하게 나타나는 서비스 이용상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차후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데 그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그 경험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써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Anderson과 Newman(1973)의 서비스 이용모델을 적용해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서비스를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각 서비스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소인성 요인에 속한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필리핀이나 일본 국적의 결혼이주인 여성의 경우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적응관련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가능성 요인에서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지지망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에서,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과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욕구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적응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국적응관련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계적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들이 적은 편이다. 소인성 요인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기타 국적에 비해 필리핀의 경우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 이용여부를 설명하는데 가능성 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통계적 유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사회적 지지망은 이들의 서비스 이용행위를 설명하는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욕구요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삶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 및 자녀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셋째,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도 소인성 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기타 국적 출신에 비해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가능성 요인 중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넷째,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자일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기타 국적과 비교했을 시 중국, 필리핀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일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가능성 요인의 경우 대부분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욕구요인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지고 있었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소인성 요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변량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수준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가능성요인과 욕구요인을 추가로 첨가한 분석에서 살펴본 각 요인별 설명력의 차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자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국인과 기타 외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졌다.

정리하면, 4개의 서비스 유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인성 요인 중에서 연령, 학력, 자녀수, 국적 등이었고, 가능성 요인에서는 경제적 수준, 모국인 및

기타 외국인 지지망 등이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고학력일수록, 취업자인 경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서비스 이용확률이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 결혼상태, 경제적 수준, 거주환경,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미취학자녀 유무 등의 변수들은 서비스 유형 따라 유의미한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소인성 요인과 욕구요인이 가능성 요인에 비해 다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특히 소인성 요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수준의 변량을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 요인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효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있어서 연령, 학력, 자녀수, 국적, 한국거주기간, 사회적 지지망이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서비스는 고학력, 취업자의 경우 이용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서비스는 저학력, 미취업자의 경우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이러한 대상자 특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며,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연령이나 학력, 취업상태, 자녀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서비스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이 적고, 자녀수가 많고,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서비스 내용 및 구성에 있어서 차별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이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려할 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언어교육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교육지원이나 가족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김승권 외, 2010),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그 외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망, 특히 모국인과 기타 외국인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관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 종교단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보다 활성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및 자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 서비스의 이용률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현저히 낮고, 또한 서비스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있어서도 다른 서비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직업훈련 서비스는 이주여성의 취업과 연결되며, 이는 곧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직업훈련 서비스의 효과성 또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고학력일수록, 취업자일 경우,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직업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저학력 미취업자들, 한국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설계한다면 취업의 욕구가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 거주환경 등의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양호할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았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적 수준이 낮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집단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빈곤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적이 있어서는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적의 여성들이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이용욕구와 관련하여 동남

아 출신의 여성들의 언어를 통해 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기타 국적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보다 서비스 이용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언어지원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면에서 지원을 하는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확률도 높아졌음을 통해 볼 때, 이러한 건강상태나 차별경험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높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주여성들의 건강상태나 차별의 경험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이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의사소통의 문제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적절한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적 욕구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안나는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 사회통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 여성, 다문화 등 사회정책 분야로 현재 이주민정책, 소수자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ankim@cu.ac.kr)

최승이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의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통합”과제에 선임연구원으로 공동참여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행정이며, 빈곤, 복지서비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eungah_choi@hanmail.net)

참고문헌

- 강유진, 강효진(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 복지연구, 28, pp.255-294.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pp.213-234.
- 김기현(2008).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서비스기관 이용률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 등 계학술대회 자료집. pp.301-331.
- 김남희(2008).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8, pp.395-423.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외(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안나, 이숙진, 김양미, 김민지(2011). 이주여성이 말한다. 과주: 문예미디어.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pp.29-52.
- 김은영, 남은숙, 채영란, 이해경(2008). Anderson 행동모형에 근거한 한국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28(3), pp.585-602.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주.
- 박경숙(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노인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5, pp.283-307.
- 보건복지가족부(2009). <http://www.mohw.go.kr>.
- 성향숙(20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25-43.
- 손은록(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용인.

-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송다영(2003).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pp.105-128.
- 윤현숙(2001).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pp.141-161.
-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pp.85-108.
- 이가옥, 이미진(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pp.113-124.
- 이강숙(2007). 국제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조사 및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이동호, 최상복, 박용역, 이희원(2006). 노인들의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용의사 결정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 pp.493-503.
- 이미애(2005). 장기 요양 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7, pp.29-47.
- 이영분, 최승희, 송인석(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PP.163-191.
- 이오복(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pp.25-56.
- 이용재, 배화숙(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pp.479-504.
- 이은아(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pp.1483-1494.
- 이인정(2004).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 가족수발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 pp.183-205.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0, pp.299-322.
- 이재모, 이신영(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노인복지연구, 32, pp.203-222.
-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원(1995). 서울시 거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pp.140-156.
- 임석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364-387.
- 임정기(2008).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3), pp.129-150.
-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 사업결과보고서.
- 정상기, 정윤수(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pp.229-255.
- 최금혜(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최승아(200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계층과 저소득층의 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pp.213-242.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pp.163-194.
-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대전: 통계청.
- 행정안전부(2011).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행정안전부.
- Abe-Kim, J., Takeuchi, D. T., Hong, S., Zane, N., Sue, S., Spencer, M. S., Appel, H., Nicdao, E., Alegria, M.(2007). Use of mental health-related services among immigrant and US-born Asian Americans: results from the national Latino and Asian American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1), pp.91-98.
- Abu-Ras, W. M.(2003). Barriers to services for Arab immigrant battered women in a Detroit suburb.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and Evaluation*, 4,

pp.49-66.

- Allard, S. W., Tolman, R. M., Rosen, D.(2003). Proximity to service providers and service utilization among welfare recipients: the interaction of place and rac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4), pp.599-613.
- Anderson, Ronald M.(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pp.1-10.
- Anderson, Ronald M., Newman, John F.(1973).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Health and Society*, 51(1), pp.95-124.
- Borrayo, E. A., Salmon, J. R., Polivka, L., Dunlop, B. D.(2002). Utilization across the continuum of long-term care services. *The Gerontologist*, 42(5), pp.603-612.
- Bourdillon, F., Bennegadi, R.(Eds.)(1992). Migration and health - What does the future hold?[Special issue]. *International Migration Quarterly Review*, 30, pp.103-115.
- Calsyn, R. J., Roades, L. A.(1993). Predicting perceived service need, service awareness, and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1, pp.59-76.
- Calsyn, R. J., Roades, L. A., Klinkenberg, W. D.(1998). Using theory to improve needs assessment studies of the elderl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1, pp.277-286.
- Calsyn, R. J., Winter, J. P.(1999). Predicting specific service awareness dimensions. *Research on Aging*, 21(6), pp.762-779.
- Chuang, S. S., Gielen, U. P.(2009). Understanding immigrant families from around the world :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3), pp.275-278.
- Devillanova C.(2007). Social networks, informa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evidence from undocumented immigrants in Mil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2), pp.265-286.

- Gill, Corinne E., Hinrichsen, Gregory A., DiGiuseppe, Raymond(1998). Factors associated with formal service use by family memb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7(1), pp.38-52.
- Henley, R. J., Alexih, L. M., Wiener, J. M., Kennell, D. L.(1990). Predicting elderly nursing home admissions: results from the 1982-1984 national long-term care survey. *Research on Aging*, 12(2), pp.199-228.
- Hyman, I., Guruge, S.(2000). A review of theory and health promotion strategies for new immigrant women.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pp.183-187.
- Kadushin, G.(2004). Home health care utilization: A review of the research for social work. *Health & Social Work*, 29(3), pp.219-244.
- Krout, J. A.(1985). Service awarenes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9(1), pp.7-19.
- Mindel, C. H., Wright, R. Jr.(1982).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black and white elderly: the role of social support system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 pp.107-125.
- Mui, A. C., Burnette, D.(1994). Long-term care service use by frail elders: Is ethnicity a factor?. *The Gerontologist*, 34(2), pp.190-198.
- Norgard, T. M., Rodgers, W. L.(1997). Patterns of in-home care among elderly black and white America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52B, pp.93-101.
- Richardson, V.(1992). Service us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elderly people, *Social Work*, 37, pp.47-54.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Service Utilization of Immigrant Women in Korea

Kim, Anna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Choi, Seung-ah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Keywords: Immigrant Women, Social Service, Service Utilization, Service Use Level, Multicultural Society